

축구·골프·배구·농구 경기장 '이태원 참사' 애도



3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2 하나원큐 FA컵 결승 2차전 전북 현대와 FC서울의 경기에 앞서 선수들과 관중이 서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농구 2022-2023시즌 개막전 식전 행사 취소

축구 FA컵 결승 전 묵념...KPGA 우승 세리머니 자제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3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조의를 표명하기 위해 2022-2023시즌 개막전 식전 행사를 취소했다.

신한은행 SOL 2022-2023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는 이날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리는 인천 신한은행과 광주 KB 경기를 막을 올렸다.

원래 이날 경기 시작 전 개막 식전행사가 예정됐으나 이태원 참사 사고로 식전 행사를 취소하고, 경기 시작 전 묵념을 했다.

또 전 선수단이 검은 리본을 착용하고, 준비했던 각종 이벤트도 모두 취소했다.

남자 프로농구 장원 LG도 이날 오후 4시 창원체육관에서 열리는 울산 현대모비스와 홈 경기를 앞두고 이벤트를 축소, 진행했다.

LG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태원 일대에서 안타까운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이에 금일 예정됐던 헬리콥터 이벤트는 일부 축소했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제나 안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프로축구 전북 현대와 FC서울의 대한축구협회(FA)컵 결승 2차전에 앞서 선수들과 관중은 애도 묵념을 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이 기간 출전 선수 전원이 검은 리본을 착용하고 경기에 뛰겠다고 30일 전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는 이날 열린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함성과 갈채 등 과도한 응원을 막았다.

이소미는 우승을 확정짓고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들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우승 세리머니 없이 조용히 우승을 자축했다.

KLPGA 투어는 또 우승자에게 달려가 생수와 꽃잎을 뿌리며 축하하는 관행도 이번 대회에서는 하지 않도록 선수들에게 알렸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0)도 앞서 참사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손흥민은 30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더이상 안타까운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사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손흥민은 이날 영국 본머스에서 열린 2022-2023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본머스와 원정 경기에 출전해 전·후반 90분을 모두 뛰며 팀의 3-2 승리에 힘을 보탰다.

이 경기를 마친 뒤 손흥민은 한글과 영어로 이번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글을 올렸다.

손흥민의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도 소셜 미디어에 "서울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에 깊은 슬픔을 표한다"는 글을 게시했고,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 역시 "서울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연합뉴스

▶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30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날 밤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손흥민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이태원 참사 애도의 글. /연합뉴스



405,065명이 좋아합니다

hm_son7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더이상 안타까운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사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K리그 새 판 짰다

광주FC·대전 1부로 승격

성남FC·김천상무 2부 강등

K리그 2022시즌 대장정이 마무리되면서 새 판이 짜였다.

K리그2의 '챔피언' 광주FC와 함께 대전 하나시디즌이 1부 리그에서 경쟁력을 확인하게 된다. 승강플레이오프 패자 김천상무와 K리그 1 최하위 성남FC는 2부 리그에서 승격을 위한 '도전의 시즌'을 보내게 된다.

지난 29일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2차전이 진행됐다.

K리그2 2위 대전과 K리그1 11위 김천상무의 맞대결 결과 두 팀이 자리를 맞바꾸게 됐다.

1차전 홈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뒀던 대전은 2차전 원정경기에서 이진현의 멀티골과 김인균, 김승섭의 골을 더해 4-0 대승을 기록했다.

적극적인 투자로 승격에 공을 들였던 대전은 1, 2차전 합계 6-1로 김천상무를 크게 누르고 8년 만에 승격에 성공했다.

대전은 시인구단 시절이던 지난 2015년 K리그 클래식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강등됐다. 이어 2020년 기업구단으로 재창당한 뒤 2년 만에 승격의 꿈을 이뤘다.

김천상무는 승격 1년 만에 2부로 돌아가게 됐다.

외국인 선수가 없고, 시즌 중반 전역자가 생기는 국군체육부대 특성상 김천상무는 매년 롤코스터를 타고 있다.

2020시즌을 1부리그에서 보냈던 상무는 지난해 협약 종료로 연구지를 상주에서 김천으로 이전했다. 이 때문에 K리그1 4위에 자리하고도 K리그2로 자동강등됐던 김천상무는 지난해 '우승'으로 승격을 이뤘지만, 1년 만에 다시 2부로 강등됐다.

앞서 K리그1 10위 수원삼성전은 오현규의 '극장골'로 FC안양을 누르고 간신히 1부 잔류에 성공했다.

1차전 원정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던 수원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차전에서 연장전 후반 15분에 터진 오현규의 골로 극적인 2-1 승리를 거뒀다.

1, 2차전 합계 3-2를 기록한 수원은 안양의 '승격 꿈'을 무산시키면서 가까스로 자리를 지켰다.

K리그 4회 우승, 대한축구협회(FA)컵 5회 우승을 이룬 '전통의 명문' 수원은 올 시즌 11승 11무 16패(승점 44)로 10위에 그치면서 첫 강등 위기를 맞았다.

수원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인 안양과의 대결에서 신승을 거두면서 내년에도 K리그 1에서 뛰게 됐다. 10번째 시즌에 승격을 노렸던 안양은 아쉽게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다.

한편 승강플레이오프 승자가 된 대전과 함께 올 시즌 K리그2 우승컵을 들어 올린 광주가 2023시즌 새로 1부리그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2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 성료

3년 만에 대면행사로 진행된 KIA 타이거즈의 '2022 호랑이 가족 한마당'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KIA는 지난 2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올 시즌 뜨거운 응원을 보내준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행사로 진행됐다. KIA는 지난 2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져 '온택트 행사'로 전환해왔다.

모처럼 선수단과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매 열기부터 뜨거운 응원까지. 무료 입장 티켓 1000장은 예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 되면서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는 볼펜 및 티셔츠를 체험할 수 있는 그라운드 이벤트로 시작됐고, 팬 사인회에 이어 3부 단상에서 본격적인 무대가 펼쳐졌다.

선수단이 입장한 뒤 김중국 감독도 무대에 등장해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중국 감독은 "올 시즌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힘냈다. 비록 와일드카드 한 경기밖에 못 했지만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던 것 같다. 정말 감사하다"며 "마무리캠프, 스프링캠프 준비 잘해서 챔피언스필드에서 가을야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암고 운영결과 휘문고 정해원 등 신인 선수들과 투수 김기훈 등 전역 선수들도 단상에서 팬들에게 인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어 시즌 리뷰 토크쇼, 레크리에이션과 선수단 장기자랑 시간도 펼쳐졌다.

'복학생'으로 분장해 끼를 선보인 내야수 김석환이 장기자랑 1위에 올라 상금 100만원을 받았고, 뛰어난 노래 실력을 과시한 투수 강병우가 2등에 올랐다. '슈퍼 루키' 김도영도 홈 실력을 보여주면서 박수를 받았다.

선수들과 팬들은 기념사진 촬영을 한 뒤 콘코스에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3년 만에 진행된 행사를 마무리했다.

올 시즌 주장으로 팀을 이끈 김선빈은 "이렇게 많

이 찾아와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하루 좋은 추억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선빈은 또 이날 경기장을 찾은 팬들을 위해 '커피차'를 준비해 1000잔의 커피를 대접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KIA 선수들은 다시 스파이크 끈을 조여 매게 된다.

지난 27일부터 광주에서 위빙업에 나선 제주 캠프단은 11월 1일부터 제주도에서 본격적인 마무리 훈련을 진행한다.

4년 만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끝내고 재점전의 시간을 보낸 주전 선수들도 3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마무리 훈련에 돌입한다.

11월 5일에는 이번 겨울 질롱코리아 소속으로 호주리그에서 경력을 쌓는 선수들이 출국길에 오른다.

외야수 김석환, 투수 최지민과 발탁된 부상 여파로 참가가 불발된 내야수 김도영 대신 김규성이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선수단이 지난 2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2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에 끝난 뒤 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